

자구를 구하는 또 하나의 방법, '그린 디자인'

가전 시장에 불어온 친환경주의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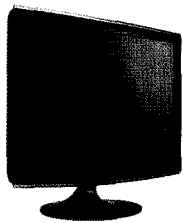
웰빙, 로하스에 이어 이제는 '친환경'이다. 재활용을 이용한 적극적인 방법부터 에너지 절약이라는 확장된 방법론까지, 2009년에는 환경을 생각한 기업의 윤리적 행보가 줄을 잇는다.

에디터 김운정 글 이상현(프리랜서) 자료 제공 대우일렉(1588-1588), 삼성전자(1588-3366), 일렉트로룩스(1566-1238), HP(02-2199-0831), LG전자(02-3777-1114)

친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기업은 '공공의 적'으로 분리되는 시대가 왔다. 이러한 분위기는 2009년 리빙 트렌드를 엿볼 수 있었던 해외 박람회에서 여실히 느낄 수 있다. 지난해 9월 열렸던 '메종 오브제 와 런던 디자인 위크'에 참가했던 많은 기업과 디자이너가 '그린', '에코'라는 정의의 이름으로 자구를 해하는 악행(?)을 용서치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내비쳤던 것. 메종 오브제에 참가했던 LG전자 역시 '에코 시크(Eco-Chic)'를 컨셉트로 푸른 정원속 느낌의 주방과 세탁 공간 안에 자사 제품을 전시하며 '그린 디자인'을 실천했다. 이제 대세는 '친환경'이다.

재활용으로 환경에 기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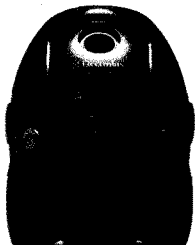
많은 기업이 환경을 보호하며 적극적으로 자구를 살릴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일렉트로룩스의 청소기 '울트라사일런서 그린'은 재활용 플라스틱을 55% 사용한 기특한 제품이다. 패키지 또한 재활용 종이를 사용해 제품 폐기 시 93%를 다시 활용할 수 있다. 71dB의 세계 최저 소음을 자랑하며 소음 공해를 줄인 것도 장점이다. HP 역시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잉크젯 프린트 카트리지를 생산한다. 사용한 잉크젯 카트리지에는 그냥 폐기하지 않고 수거해 플라스틱, 금속 등으로 분해한 다음 HP 제품에서부터 생수병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으로 부활시킨다. HP 레이저젯 P1005와 P1006, 개인용 레이저젯 프린터 P1505의 경우 재활용 카트리지 사용은 물론, 친환경에 입각한 콤팩트한 디자인으로 플라스틱 사용이 10%나 줄었다. 또한 새로운 프린팅 시스템을 도입해 출력 품질 손상 없이 페이지당 토너 사용량을 9% 감소시켰고, 녹는점에 도달하는 에너지 사용도 그전 모델에 비해 15% 감소시켜 2010년까지 이산화탄소 양을 대략 250만kg 줄이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 이는 10년 동안 약 6만 그루 이상의 나무를 심는 효과와 같다. 삼성 역시 크리스털 느낌의 신소재를 사용한 TV 싱크마스터(SyncMaster) T3종을 선보이며 친환경 운동에 동참했다. 이 제품의 외판 소재에서는 휘발성 유기 화합물이 발생하지 않을 뿐 아니라 100% 재활용이 가능하다.



삼성 '싱크마스터'



대우 클라세 '멜트플러스'



일렉트로룩스 '울트라 사일런서 그린'



절약 정신이 환경에 미치는 고마운 영향

불황의 여파가 거세지면서 '친환경'이 단순한 자연 보호의 의미를 넘어 '에너지 절감', '자원 절약'의 영역에까지 확장되고 있다. 대우일렉의 클라세 드럼 세탁기 '멜트플러스'는 세제와 무세제 겸용 세탁기로 일반 드럼 세탁기 대비 소비 전력량 40%, 물 소비량 30%를 절감한 알뜰형 가전이다. 클라세 에어컨 역시 고성능 열 교환기를 채택해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고 있다. 냉매가 하나의 파이프를 통해 순차적으로 이동하던 기존 실외기와 달리 병렬로 연결된 여러 개의 튜브로 한꺼번에 이동해 냉매 사용량이 30% 이상 감소한 것. LG전자의 디오스 식기 세척기는 물과 전기의 사용량을 대폭 줄여 소비자를 미소 짓게 한다. 평균적으로 손으로 설거지할 경우 약 60리터의 물을 사용한다고 한다. 그러나 디오스 식기 세척기의 경우 10.6리터의 물만 소비할 뿐이다. 1회 사용 시 소모되는 전기는 0.6kwh로 이는 전기 다리미 사용 수준이다. LG전자의 트롬 세탁기는 세제 농도를 감지해 세탁 시간, 행금 횟수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한심 케어' 시스템을 장착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물과 전기를 절약한다. 이처럼 많은 기업이 '친환경'을 내세워 자구의 건강을 생각해 재활용, 에너지 절약 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다음은 소비자의 몫이다. 환경을 생각한 엘리트 소비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